

내 꿈에 도전한다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청소년 수기 공모 정읍에서 김형선군 · 김서연양 수상 영예

지난 8일 전주시에 소재한 바울센터에서는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이 주관하는 '2018년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청소년 수기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정읍시에서는 김형선(배영고 2학년) 군이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을, 김서연(한솔초 5학년) 양이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동장과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뒀다.

이날 행사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이하 포상제)의 경험을 통한 청소년의 긍정적 변화 · 성장 사례를 발굴하여,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청소년 수기 공모'를 실시하여 수상자들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상제에 참여한 김서연(한솔초, 5학년) 양은 "이 활동을 통해 내가 공부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물론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포상제 활동을 하고 난 뒤 무언가 좀 더 성장한 내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일 전주시에 소재한 바울센터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청소년 수기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포상제는 청소년들의 자기도전과 목표를 성취해 가는 성장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참여연령 만9세~13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참여연령 만14세~24세)로 구분되며, 정읍 청소년문화

체육관과 신대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프로그램인 포상제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통 큰 이웃사랑, 빛 발하다

익산건축사협회, 연말 맞아 연탄배달 봉사

익산건축사협회(김경태 회장)의 통 큰 이웃사랑이 빛을 발했다. 익산건축사협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연탄배달 봉사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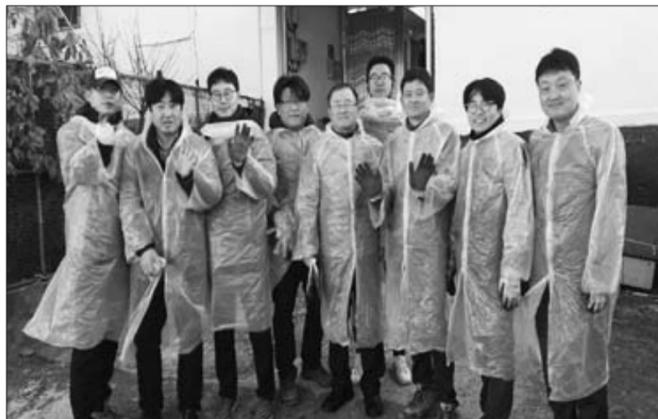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성금기탁자 김경태 회장, 나경천 총무, 소정훈 감사, 배철용, 김종왕, 문명길, 이동철, 김대운, 추연철, 정상민, 김병권, 최남재, 박창균, 정진팔, 김만민, 박형철 건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탄배달 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태 회장의 15명 회원들이 연탄 2000장 배달봉사를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을 마련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인 금강동, 석탄동 및 동산동 지역내 7가구에 직접 배달을 함으로써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그 외에도 익산건축사협회는 지난 6일 푸른이산인들기 5,000,000원 기금기부를 통해서 익산시의녹색공간이 확충되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할 정도로 기부봉사를 하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 계층, 저소득 계층 및 보호시설 등에 직접 배달 봉사를 해마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익산건축사협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이나, 보호시설 등에 계속적으로 선정을 베풀어 왔다고 전했다. /익산=유병희 기자



익산건축사협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연탄배달 봉사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최근 밝혔다



순창 드림스타트팀, 아동권리 확대 예방교육 호응

순창군이 지난 8일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드림스타트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확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는 드림스타트기정과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의 이해와 권리감수성 향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보육 실천, 아동 스스로 권리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동권리 확대교육에 참가한 김모(49, 순창읍)씨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와 양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되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다짐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양육 및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 같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희 기자



교월동, '사랑담은 김장'으로 이웃사랑 실천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최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교월동 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종식)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인호),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인(회장 정재영, 이하 교월사모) 등 관내 사회단체가 연합,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단체 회원들은 직접 배추 500여포기와 각종 양념 등의 재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을 주축으로 정성껏 양념을 바 꾸며 김치를 담가 관내 경로당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가호호 방문, 전달하였다.

김정담그기 행사에 함께한 정우근 교월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준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교월사모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모든 이들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교월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전북도시가스 남원지사와 소방응원협정 체결

남원소방서는 10일 소회의실에서 전북도시가스 남원지사와 민·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가스시설 화재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소방응원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전북도시가스(주)는 2012년부터 남원시 지역에 가스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약 1만5천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범협정으로 관련 정보공유 및 재난현장 인력과 기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전북도시가스와의 민·관 응원협정 체결을 계기로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협력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내 지원기관과의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작년 6월 12일 개정된 소화기규 및 자동차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른 'K급 소화기' 의무비치 집중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K급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에서 발생되기 쉬운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산 조기심 대표, 이웃돕기성금 2000만원 기탁

농업회사법인 (주)농산 조기심 대표가 10일 김산동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2천만원을 기탁해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조기심 대표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조 대표는 "추운겨울을 맞아 힘들게 지내는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보존 · 활용 벤치마킹

익산시 역사문화재과(과장 배석희)는 지난 8일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단합대회는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인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과 공주 마곡사를 탐방했다.

이날 역사문화재과 직원들은 수원화성과 공주 마곡사를 탐방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시의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익산=유병희 기자

무주경찰, 공공기관 카메라 불법촬영 예방 단속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12일까지 무주군 관내 체육·문화시설 및 관공서 등 총 32개 기관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예방활동은, 최근 A지역 공무원이 관할 주민센터 화장실에 위장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직원과 민원인들을 불법 촬영한 것과 관련해,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군청 및 아동·여성보호 무주군연대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경찰, 외국인 영어보조교사 희망자 대상 경찰서 견학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정읍시에서 근무하는 24명의 외국인 영어보조교사 24명 중 희망자 8명을 우선대상으로 경찰서 견학 및 '경찰관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경찰서에 견학 온 원어민교사들을 상대로 112종합상황실,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 등을 견학하게 하여 외국인인을 위한 112신고 통역서비스 안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경찰장구 사용법 등 다양한 경찰업무를 소개했다.

이어서 정읍경찰서 의사담당 김성태 순경의 한·영 통역지원으로 당시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법률상담, 질의응답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원어 민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